

이슈

한·EU FTA 발효 이후, 주얼리 제품의 대EU 수입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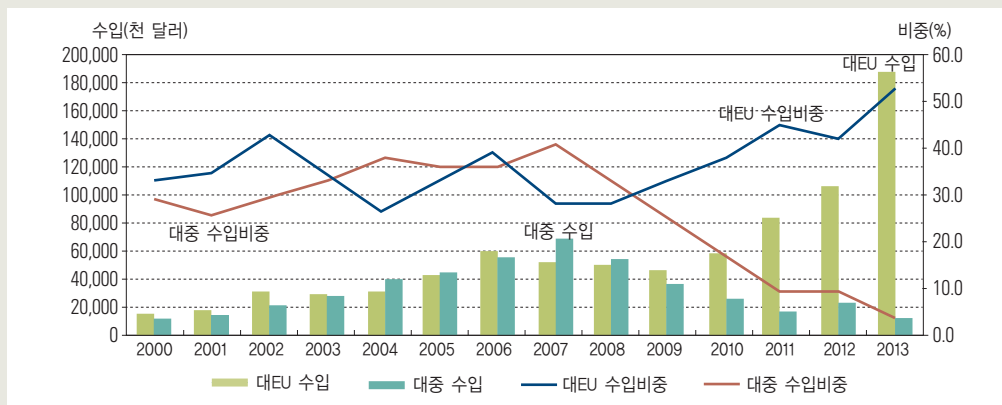
▶ 한·EU FTA 협정에 의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

- 2011년 7월 1일 기점으로 한·EU FTA가 잠정 발효됐으며, 주얼리 부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
 - 주얼리 제품(원석·귀금속 지금 등 소재, 공업용 제품 제외) 부문은 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5.6~8%에 이르는 수입관세가 완전 철폐
 - * 금제·은제·기타 귀금속제 신변 장식용품과 부분품 : 5년간 단계적 관세 인하, 2016년 7월부터 완전 철폐(7113110000, 7113192000, 7113199000)
 - * 백금제·금도금 비금속제·은도금 비금속제 신변 장식용품과 부분품 : 3년간 단계적 관세 인하, 2014년 7월부터 완전 철폐(7113191000, 7113202000, 7113203000)
 - 협상 당시 브랜드, 디자인, 제품력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EU의 주얼리 제품에 대해 한·EU FTA 체결 시 수출보다는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지목

▶ 주얼리 제품의 대EU 수입 급증 및 수입시장 점유율 급상승

- 한·EU FTA 발효 이후 3년간 주얼리의 대EU 수입은 급격히 확대되어 국내 주얼리 수입시장 점유율이 급상승
 - 주얼리 제품의 대EU 수입은 2011년 7월 이후 급증하여 2013년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, 2013년에도 전년비 77.2% 확대되어 1억 9,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1년간 수입이 두 배 규모로 확대
 - 이에 따라 주얼리 제품의 대EU 수입비중은 FTA 발효 이전 2010년 38.1%에서 2011년 45.1%를 기록하였고, 2013년에는 52.8%로 전체 수입의 절반을 상회

▶ 주얼리 제품의 대EU·대중 수입 추이



자료 : KITA.net

- 국가별로는 2013년 기준 대프랑스 수입이 1억 3,000만 달러(대EU 수입의 68.6%), 대이탈리아 수입이 5,000만 달러(24.0%)로 양 국가가 주얼리 제품 대EU 수입의 92.6%를 차지
- 반면 주얼리 제품 수출은 FTA 발효 이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발효 이후 가격경쟁력 제고로 2012년 38.9%, 2013년 66.2%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규모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더욱 확대
- * 대EU 무역수지(백만 달러): (2011) -77.3 → (2012) -96.1 → (2013) -171.4
- 반면 대중국 수입은 소비의 고급화 및 고가 브랜드 제품의 선호도 증가 등으로 2008년부터 지속 감소하였고, 중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40.8%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0년 17.3%, 2013년 3.4%로 하락

▶ 주얼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 혁신 노력 개요

- 향후 주얼리의 대EU 수입은 소득수준 증대, 경기회복, 고급·고가 제품 수요 확대 및 소비 차별화 트렌드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EU산 주얼리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탈리아, 프랑스 등 패션 선진국들 대비 디자인, 품질, 브랜드, 마케팅 등 모든 혁신 요소에서 열세
 - 또한 국내 주얼리 제품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합금(Alloy) 개발 등과 같은 기초 관련기술 역시 열세
- 따라서 고급 수입제품의 수입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외 수요 창출을 위한 국내 주얼리산업의 노력이 필요
 - 종로 등 주얼리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숙련인력 공급 및 공동 마케팅, 디자인 개발 등 지원 필요
 - 주얼리 업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주얼리 원석 및 금·지금 면세화, 개별소비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, 디자인 의장등록 절차 간소화 등 법·제도 개선 필요

▶ 작성 : 이임자(성장동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, 02-3299-3108)